

지역화 음악교육을 위한 방안 모색(2)**

- 고성군 · 사천시 · 진주시를 중심으로 -

권 태 욱*

목 차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II. 지역화 교육이란 무엇인가?

1. 지역화 교육의 의미와 목적
2. 음악교육의 지역화 개념

III. 지역음악교재의 자료선정 원칙과 구성

1. 지역의 향토민요
2. 지역의 무형문화재
3. 향토민요와 무형문화재의 구성 비율

IV. 지역화 교육을 위한 음악교재의 실례

1. 고성 지방의 지역음악교육 자료와 실례
2. 사천 지방의 지역음악교육 자료와 실례
3. 진주 지방의 지역음악교육 자료와 실례

V. 마무리

* 주제어 : 지역화교육, 국악교육, 고성음악, 사천음악, 전주
음악

* 진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학과 교수

** 이 논문은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세계 무한경쟁사회에서의 강력한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만의 정서와 특색을 담은 독창적인 문화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서양음악과 구별되는 한국 고유의 음악문화가 전승되고 있다. 예컨대 단선율(單旋律) 형태로 진행되는 음악적 구조를 비롯하여 다섯 음이 주축이 되는 5음계의 구성, 느린 속도에서 점차적으로 빨라지는 장단의 패턴, 다양한 음색을 갖춘 팔음(八音)의 악기 등은 한국음악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다. 이처럼 한 나라를 대표하는 고유한 음악문화는 곧 지역의 정서와 문화적 속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지역의 정서와 특성을 지닌 지역음악문화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요즘과 같이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역설적으로 지방의 토속성과 지방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방이 살아남으려면 지역적으로 차별화 된 문화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그 지방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지방문화의 정체성 확보와 더불어 지방문화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도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역사·문화·문명의 큰 중심권이었고, 산맥과 들판, 바다, 강 등 자연과 지리적 환경이 두루 갖추어져 있는 경남지방은 그 환경에 따른 다양하고 풍부한 정서가 담긴 향토민요가 많이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빈번한 인구의 전·출입,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은 경남지방의 토착문화인 향토민요를 빠른 속도로 쇠퇴시켰다. 근대화의 속도가 타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랐던 경남지방은 향토민요와 같은 무형(無形)의 전통문화를 찾는 일이 쉽지가 않다. 한 예로 현존하는 노래보다 사라진 노래가 더 많다는 사실은 향토민요와 같은 무형문화의 소중함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경남지역의 향토민요를 채보하고 싶어도 채보 대상자의 작고(作故) 내지는 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채보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늦기 전에 경남지방에 전하는 향토민요의 발굴조사는 물론이고, 음악과 관련된 무형문화재의 올바른 전승을 위하여 지역음악문화의 교육적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역의 독특한 음악문화는 결국 한국음악문화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지역음악의 발굴작업을 통한 교육적 활용은 중요한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음악교육의 지역화를 위한 연구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본인이 200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음악교육의 지역화를 위한 연구프로젝트 가운데 제2지역에 속하는 연구분야로,¹⁾ 경상남도 10개 시, 군 중 고성군과 사천시, 그리고 진주시 일대에 산재해 있는 음악적 재료, 즉 향토민요와 무형문화재의 교육적 접목을 시도한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음악문화의 독창성을 발굴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음악문화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경험케 하는, 이른바 지역음악문화의 교육적 활용을 모색하는데 있다.

II. 지역화 교육이란 무엇인가?

1. 지역화 교육의 의미와 목적

21세기를 달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건설과 세계화 및 정보화시대에 맞는 국가위상의 재조정, 국제사회에서 공존·공영하는 한민족

1) 연구의 편의상 경상남도 향토민요의 지역권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구분	해당 시·군의 지역명	권역별	비고
1지역	거제시·통영시	동남부	
2지역	진주시·사천시·고성군	중남부	○
3지역	마산시·창원시·진해시·함안군	중부	
4지역	밀양시·김해시·양산시·창녕군	중동부	
5지역	하동군·산청군·남해군	서남부	
6지역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의령군	북서부	
7지역	울산광역시·울주군	동부	제외

의 공동사회(community) 건설, 그리고 민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화라고 하는 과제도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 세계화가 우리 민족의 생존 조건을 발전시키고 승화시켜 21세기 중심국가로 자리하기 위한 설계라면, 지역화는 곧 세계화를 내실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때문에 세계화가 가속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지역화는 더욱 긴급하고 중시될 수밖에 없다.

지역화(localization)란 각 지방이 중앙 중심의 질서에서 탈피하여 지방의 정치·경제의 상대적 자립과 자율적인 사회조직, 그리고 지방문화의 창조 등 지역생활의 뿌리내림을 위한 지방의 자기 전개적 회복을 가리킨다. 모든 것이 중앙 집중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사회에서는 지방은 중앙이 생각하고 결정하면 이에 쫓아가기만 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위치와 자세가 특색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서는 지방의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문화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자아발전 능력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 지역화란 이러한 추이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으로서, 지방의 자아발전 능력을 총체적으로 회복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면 21세기의 세계화를 향해 진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문화의 지역화 내지는 음악교육의 지역화가 왜 필요한가? 그것은 지역문화의 창달과 더불어 지방문화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작금의 문화적 활동영역은 대체로 서울 중심으로 전개되어왔기 때문에, 지방의 문화활동에 대한 제반 여건은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열악하다. 이러한 문화적 형태로는 지방문화의 창달은 물론이고, 앞으로 전개될 지방문화의 균형적 발전과 세계화를 향한 경쟁력에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한국문화의 발전은 어디까지나 한국인이 국내 각 지역마다의 조건과 특성에 맞는 역량을 갖추어 국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때 더욱 촉진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화의 현상적 문제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의 불균형을 꼽을 수 있다. 예컨대, 인구와 교육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대도시와 중소도시, 중소도시와 농촌간의 교육수준 및 지역 간의 불균형은 지역주의 내지는 지역감정과 연결되어 국

민화합과 대동사회 건설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과 지방의 교육적 불균형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서울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역화 교육의 핵심이자 목적이다(권태욱, 2004).

2. 음악교육의 지역화 개념

음악교육은 한 마디로 인간의 정서교육이다. 인간은 음악을 통해서 창의적 욕구를 충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게 된다. 학교에서의 음악교육 역시 아름다운 정서를 길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다양한 음악적 경험은 개개인의 창의적 실천과 자아실현에 많은 도움을 준다. 때문에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단순히 음악의 기교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하여 인간의 건전한 정서를 길러주고, 가정과 이웃,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인류 전체를 사랑할 수 있는 심성을 길러주기에, 학교현장에서 음악교육은 특별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에 접어든 21세기는 국가 상호간의 문화적 개방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국가적 열린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나라간의 열린 사회일수록 자국만의 정서와 특징을 담은 독특한 문화가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그 가치와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한 예로 근간에 한국적 소재를 담은 영화가 세계 영화시장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고, 한국의 판소리가 세계 문화유산에 선정됨과 동시에 유럽무대에서 많은 갈채를 받은 바 있다. 이것은 곧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실례이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국악은 해방 이후 100여 년의 역사²⁾에 불과

2) 우리나라에서 양악의 본격적인 등장은 1901년(광무 5) 독일의 지휘자 겸 작곡자인 후란쯔 에케르트의 도착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양악이론의 소개는 1901년 이전부터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러한 추정의 근거는 첫째, 카톨릭이 개신교의 도착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널리 전파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1885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

한 서양음악이라고 하는 외래문화의 위력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였으나, 다행히도 국가적 지원과 교육정책의 뒷받침 속에서 차츰 회복단계에 있다.³⁾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국악에 대한 인식과 교육현실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음악교육의 지역화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음악교육의 지역화 개념은 한 마디로 중앙 중심의 교육⁴⁾에서 탈피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음악문화를 먼저 경험케 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음악교육은 대체로 초·중등학교를 막론하고 서양음악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또한 지역음악의 문화적 요소들을 배제한 중앙 중심의 음악교육이 주축을 이루었다.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현장에서 지역음악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상남도 각 지역의 정서와 특성을 담은 향토음악 내지는 그 지역에서만 전승되는 중요무형문화재 등은 현행 음악교과 내용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적 편향 때문에 학생들의 지역음악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함심 고취는 물론이고, 지역음악문화의 올바른 전승과 창조적 발전에 한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

Underwood)이다. 둘째, 청나라 수도에 머물렀던 카톨릭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신들은 서양음악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공식적인 기록을 포함해도 양악의 역사는 150년을 넘지 않음.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및 『구라철사금자보』 참조.

- 3) 현재 제7차 교육과정에서 초등국악의 비중이 서양음악 대비 40.2%를 차지하고 있고, 중등은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제8차 교육과정에서는 초·중등 각기 10%씩 상향 조절될 예정이다.
- 4) 중앙중심 교육의 대표적인 장점은 국가의 이념이나 시책과 같은 국가적 의지의 관철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통일된 기준으로 전국의 학사를 관리할 수 있으며, 외부의 비교육적인 요구나 압력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앙중심 교육의 장점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첫째, 현장교사들의 창의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기 쉽고, 피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위치에서 교육에 임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과 학교의 특수성, 지역사회의 요구, 그리고 학생들의 차이 등을 무시하고, 모든 내용과 방법을 동일시하는 획일적인 교육이 되기 쉽다는 점이다. 셋째, 하향으로만 일관하는 행정일변도의 권위주의적인 풍토가 조성되어 개방성이 무시된다는 점, 넷째, 교육을 도구주의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자체로서의 의미를 무시한 채 수단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라서 앞으로 펼쳐질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무한경쟁에서 건전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지역음악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Ⅲ. 지역음악교재의 자료선정 원칙과 구성

음악교육은 단순히 음악의 기교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하여 인간의 건전한 정서를 길러주고, 가정과 이웃,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인류 전체를 사랑할 수 있는 감성과 정서를 길러주는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음악교육은 다른 학문분야와는 달리 학생들의 심미적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교재내용에 대한 영역별 짜임새나 자료의 구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객관적 기준이 요구된다. 특히 음악교육에서 민요교육은 인간의 심성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향토민요에 대한 자료선정의 원칙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지역음악교재를 위한 자료선정의 원칙을 경남의 향토민요와 무형문화재 순으로 제시하겠다.

1. 지역의 향토민요

현행 초·중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구성체제는 크게 가창·기악·감상·이론·창작·기타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음악의 구성요소 가운데 인간의 정서함양에 가장 효과적인 분야가 바로 가창영역이다. 현행 초·중등학교 음악교과서에 구성된 교과내용 가운데 가창영역이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음악교과서에 포함된 가창영역은 가곡(한국가곡, 서양가곡)·민요(통속민요, 토속(향토)민요)·동요(전래동요, 창작동요)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향토민요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하고, 지역음악교재에 포함되어야 할 다섯 가지 선정원칙을 제시하겠다.

- 1) 그 지역만의 정서와 특성을 담은 노래
- 2)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적이고 정신적으로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노래
- 3) 누구나 흥겨움을 느낄 수 있는 노래
- 4) 학생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수준의 노래
- 5) 노래 내용 면에서 역사적 가치와 전승적 의미가 담긴 노래

이상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선정원칙은 지역음악교재 편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간주된다. 우선 그 지역의 정서를 담고 있고, 그 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노래는 지역의 문화적 정통성과 관계 있으며, 지역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애郷심을 심어준다. 둘째, 학생들에게 정신적·육체적인 유익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곧 음악교육의 최대 목표이다. 그 지역의 노래를 듣고, 부르고, 느낌으로 해서 얻어지는 교육적 효과는 음악교육에서만 가능하다. 셋째, 노래내용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와 재미를 줄 수 없다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기존의 향토민요라도 학생들에게 좀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노래의 선정이 필요하다. 넷째, 초·중등학교 음악교재에서 학생 수준 이상의 노래 내용을 담고 있다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학생 누구나 자유롭게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음악적 수준이야말로 음악교육의 기본 요건이다. 마지막으로 노래에 담긴 내용 중에서 역사적 가치가 풍부하고, 앞으로 전승적(傳承的) 가치가 있는 노래는 전통음악교육의 가장 큰 이념으로 꼽는다. 전통은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끊임없이 전승하고 재창조해나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초·중등음악교재에 포함될 향토민요의 자료선정 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은 자료선정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각 지역에 따라 또는 학교장이나 교사의 역량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2. 지역의 무형문화재

1997년 12월 8일 문화재청에서 제정한 문화유산헌장⁵⁾에서도 명시되었듯이, 문화유산은 한 마디로 그 민족의 숨결이 숨쉬는 보배이자 국가적 자산이다. 때문에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하고,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분야에서 앞장서야 한다. 문화재청에서 제정한 문화유산 헌장에 나타나 있듯이,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학교·사회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하며,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⁶⁾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재, 특히 음악과 관련된 무형의 문화재는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의 교육적 활용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역마다 악(樂)·가(歌)·무(舞)가 동반되는 무형문화재를 지역 음악교재에 포함시킬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선정원칙을 제시하겠다.

- 1) 중앙 및 지역 관청에 등록된 무형문화재를 우선적으로 선정.
- 2)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를 선정.
- 3)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과 정서를 담은 무형문화재 선정.
- 4) 관청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음악의 전승적 가치가 높고 앞으로 발전 가능한 무형문화재를 선정한다.

5)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의 자산이다. 민족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 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 사랑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 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것을 다짐한다.

6) 문화유산헌장 중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선정원칙은 주로 문화재의 전승적인 면과 미래의 발전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우선 국가 또는 지방이 지정한 문화재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이면서 지속적으로 계승시켜야 할 국가적 임무도 띠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재는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도 중요하지만, 전승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이 더 중시된다. 한국의 판소리도 제대로 모르면서 서양의 오페라나 일본의 가부키를 논하고, 한국의 남대문도 모르면서 프랑스의 에펠탑을 논하는 작금의 교육적 모순을 지역화 교육에서 극복하자는 것이다. 둘째, 같은 문화재라도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화재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악·가·무가 함께 하는 무형문화재는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 상호간의 협동심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 의미가 크다. 셋째, 밀양의 「아랑제」나 남원의 「춘향제」, 삼천포의 「12차 농악」과 같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나 문화재는 그 지역만의 상징성을 띠고 있으면서 그 지역을 홍보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넷째, 문화재는 영원히 변화지 않는 박제화(剝製化)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언제든지 재창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고, 교육적 내용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비지정 문화재라도 선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⁷⁾

지금까지 지역음악교재에 수록될 향토민요와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선정할 때 포함되어야 할 자료선정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지역음악교재를 위한 선정 원칙에서 역점을 두었던 점은 첫째, 음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흥미성, 둘째, 그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음악문화의 정통성, 그리고 셋째, 지역 음악을 바탕으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음악의 창조성을 고려하였다.

7) 지역음악교재를 위한 자료선정의 원칙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제시한 “음악교육의 지역화를 위한 방안 모색,” 『음악과 민족』, 제 26집의 향토민요 및 무형문화재 자료선정 원칙내용을 그대로 적용함.

3. 향토민요와 무형문화재의 구성 비율

1) 가창영역에서의 향토민요 비율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돋보이는 대목은 전통음악교육의 비중을 높였다는 점이다. 예컨대, 초등학교 음악교재의 구성비중은 서양음악 대비 40대 60%를 차지하고 있고, 중등학교 음악은 50대 50%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인 초등국악교육의 가창영역도 가능하면 교육부의 요구대로 양악대비 40%대 60%으로 편성해주고, 중등학교의 경우도 50%대 50%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국악의 구성비를 근거로 가창영역에서 향토민요의 비중을 초등과 중등의 예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1·2>와 같다.

<표 1> 초등 지역음악교재의 가창영역 구성비⁸⁾

분류	정가	민속악						동요		합계
구분	가곡·가사 시조	판소리	민요					전래	창작	
			경기	남도	서도	경상도	향토			
%	10	5	10	10	5	10	30	20	100	

<표 2> 중등 지역음악교재의 가창영역 구성비

분류	정가	민속악						합계
구분	가곡·가사 ·시조	판소리	민요					
			경기	남도	서도	경상도	향토	
%	20	10	10	10	10	20	20	100

위의 <표 1>은 앞으로 진행될 초등학교 지역음악교재에서 가창영역의 구

8) 권태욱, “음악교육의 지역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서 제시한 비율임.

성비를 제시한 것이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국악 비중 40%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본 연구에서 강조한 점은 경상도민요의 비율을 경기민요와 같게 하고, 기존의 음악교재에 없었던 지역의 향토민요를 약 30%정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 이처럼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향토음악을 강조한 이유는 유년시절의 노래 경험이 청소년기는 물론이고, 장차 어른이 되어서도 영원히 잊지 못하는 심리적 효과를 활용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위의 <표 2>는 중등학교 지역음악교재에서 향토민요의 비중을 제시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중등교재에서는 초등교재보다 10% 줄인 20%를 책정함과 동시에 경상도민요의 비중을 20%로 확대한 점이다. 이러한 근거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향토음악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즉 초등교육 단계에서 향토민요의 교육목표가 달성되면 그 다음으로 경상도 지역의 민요로 넘어가고, 향토민요와 경상도민요를 섭렵하고 나면 다른 지역의 민요로 확대시켜나가는, 이른바 나선형 구조처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가는 방법이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역음악교재를 편성할 때 가창영역 중 향토민요의 비중을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고성군은 물론이고, 사천시나 진주시에서의 지역음악교재는 가창영역에서 향토민요의 비중이 초등은 30%를, 중등은 20%가 되도록 구성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2) 무형문화재의 선정 범위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음악교육의 지역화가 되기 위해선 각 지역의 향토민요 이외에도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도 훌륭한 교육적 소재로 삼을 수 있다. 지역음악교재에 포함될 무형문화재의 선정원칙은 첫째, 중앙 또는 지방관청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공식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관청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는 지역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의 올바른 계승이라는 전승적인 측면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둘째, 악·가·무가 함께 하는 무형문화재를 선정한다. 음악과 노래와 춤이 함께 하는 무형문화재는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 상호

간의 협동심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동료애를 느끼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도 훌륭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 셋째, 관청에 등록되지 못한 무형문화재일지라도 사료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높고, 교육적 내용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비지정문화재라도 교육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지역음악교육의 핵심은 지역에 산재해있는 훌륭한 음악적 소재들을 학교현장으로 끌어 들여 얼마나 효과적으로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냐에 달려 있는데, 이러한 목적달성은 곧 학교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IV. 지역화 교육을 위한 음악교재의 실례

본 장에서는 음악교육의 지역화를 위한 구체적 실례의 하나로, 초·중등 음악교재에 활용할 수 있는 향토민요와 무형문화재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고성군과 사천시, 그리고 진주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고성지방의 지역음악교육 자료와 실례

고성군은 경남 남부해안에 위치하고, 동과 서남 일대는 바다에 임하고, 서·남·북은 육지인 반도이며, 동서로 39km, 남북으로 32km이다. 고성군에서 향토민요를 채록한 장소는 고성읍과 거류면 등 2개 읍·면과 우산리 외 우산과 송산리 산촌마을의 2개 동에서 이루어진 것이다(한국민요대전, 1994, pp. 95-119). 그리고 현재 고성군에서 전승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는 모두 세 종류로 조사되었다. 이제 고성군에 전승되고 있는 음악자료 가운데 지역음악교재에 활용할 수 있는 향토민요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소개하겠다.

1) 고성지방의 향토민요

고성지방에서 채록된 향토민요는 100여 종이 있으나, 이 가운데 지역음악 교육에서 교육적 활용이 가능한 향토민요로는 「모찌는소리」를 비롯하여 「모심는소리」(등지소리) · 「논매는소리」(상사소리) · 「보리타작소리」(도리깨소리) · 「물레소리」(1) · 「물레소리」(2) · 「삼삼는노래」 · 「치마노래」 · 「이거리저거리」 · 「상여소리」 · 「모심는소리」(짧은등지소리) · 「술래노래」 · 「망개소리」 · 「은실타령」 이상 14곡을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음악적 수준에 따라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 소개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교육적 활용이 가능한 고성지방의 향토민요

지역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성군	모심는소리(등지소리) · 치마노래 · 이거리저거리 · 물레노래(1) · 술래노래 · 망개소리 · 은실타령	모찌는소리 · 논매는소리(상사소리) · 보리타작소리(도리깨소리) · 물레노래(2) · 삼삼는노래 · 상여소리 · 모심는소리(짧은등지소리)

위의 <표 3>에서 소개한 고성지방의 향토민요들은 현재까지 국악계에서 발굴하여 채보화 되거나 이미 인쇄물로 소개된 것들이다. 초등 및 중등음악 교재로 분류한 근거 원칙은 주로 향토민요 선율의 음악적 수준과 가사의 내용을 참작하였다. 그리고 위에 소개된 향토민요 이외에도 각 지역마다 미 발굴된 노래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⁹⁾, 앞으로 지역별로 향토민요의 발굴 및 정리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향토민요를 초등과 중등으로 따로 구별하여 소개하였으나,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 그리고 교사들의 역량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해도 무방하다.

위의 <표 3>에서 제시한 향토민요 14곡 모두를 악보화 하여 소개하는 것

9) 거제지역의 예만 들더라도 지금까지 발굴된 향토민요는 400여 곡에 이른다. 여기에 대한 상론은 권태욱, “음악교육의 지역화에 관한 연구(1), -거제시와 통영시를 중심으로-” 『음악과민족』(부산: 민족음악학회, 2003), 제25호, 387쪽을 참조할 것.

이 순서이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초등학교에서 교육적 활용이 가능한 고성지방의 향토민요 한 곡만 실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의<악보 1>과 같다.

<악보 1> 모심는소리(등지소리)

채보 : 권태욱 · 박정련

조 리 조 --- 리 조 조 리 새 야 나 리 나 --- 리 나 나 리 새 야
 하 나 무는 --- 꽃 에 서 놀 고 거 --- 거 --- 무 --- 는 줄 에 서 논 다
 샅 부엌 두 뿔 --- 매 하 보 러 간 다 교 부엌 은 갈 --- 배 물 길 뿔 간 다
 일 락 서 산 에 --- 해 님 어 가 고 월 출 동 --- 산 --- 에 달 --- 떠 온 다

위의 <악보 1>에서 제시된 「모심는소리」는 고성지방에서 널리 불려지고 있는 향토민요로, 노동에 대한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부르는 일종의 노동요이다. 고성지방은 다른 지역과 달리 농요가 잘 정리되어 있는 지역이다. 고성의 들판은 거의 막힌 곳이 없고 넓게 펼쳐져 있어 멀리 들리도록 내 지르는 소리가 많이 나타난다. 고성의 「모심기소리」는 「짧은등지소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남의 다른 지역에서 불리는 「모심기노래」와는 아주 다른 말 놀음과 같은 가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악보 1>에서 보듯이, 「고성모심기소리」는 대체로 「미·술·라·시·도」로 구성되었다. 「도」에서 「시」로 꺾는 음이 나타나지만 「미」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도·라·미」로 하행하는 선율적 특징으로 보아 메나리토리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 노래는 능청거리며 조금 느린 굿거리장단으로 연주하

면서 농부의 눈에 비치는 일상을 노랫말로 담고 있다. 노래의 구조는 크게 메기고 받는 형식인데, 메기는 부분과 받는 부분의 선율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부르기에 매우 적절하며, 재미있는 말놀음으로 가사를 바꾸어 부르기에 적당한 노래로 판단된다.

2) 고성지방의 무형문화재

현재 고성군에서 전승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로는 「고성오광대」를 비롯하여 「고성농요」, 그리고 「상여어울림소리」 이상 세 종류이다. 고성지방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고성지방의 무형문화재 현황과 내용

지역	문화재명	내 용
고성	오광대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고성지방의 대표적 문화유산이다. 이 문화재는 말뚝이의 양반에 대한 조롱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특징과 파계승(破戒僧)에 대한 풍자가 돋보이고 있다.
	농요	1987년 7월 무형문화재 제84호로 지정된 고성지방의 대표적인 농요이다. 이 노래는 일명 「등지」라고도 하는데, 이 땅의 선인들이 고달픈 농사일의 애환을 흥겨운 우리 가락에 담아 부른 것이 특징이다.
	상여 어울림소리	1987년 7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84호로 지정된 민요로서, 고성군 동회리의 고성농요보존회에서 전승되고 있다. 이 노래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 고성오광대

「고성오광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고성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고성오광대의 ‘오광대’라는 이름은 오행성세(五行成歲)에서 연유된 ‘오(五)’에서 온 것이라는 의견이 유력하며, 놀이 내용도 다섯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라오기(新羅五伎)의 다섯 마당놀이와의 연관도 생각할 수 있다.

그 주체는 산대도감 계통극으로서의 공통성을 지녀 영남의 오광대의 들놀음의 하나이며, 말뚝이의 양반에 대한 조롱이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 파계승(破戒僧)에 대한 풍자는 고성지역에 불교신앙이 널리 남아 있어서 매우 약한 편이다.

「고성오광대」의 연희시기는 옛날에는 세시놀이로서 정월 대보름날을 중심으로 행했으나, 내려오면서 봄과 가을의 놀이가 되어 오락화 하였다. 「고성오광대」의 주역은 문둥이·원양반(청보양반)·젓양반(차양반)·젓광대(5인)·말뚝이·초랭이중(2인)·소모(2인)·비비양반·비비(영노)·영감·작은어미(제밀주)·큰어미 등 19인이 연출하는데, 역시 가면도 19개이며, 아기인형이 사용된다.¹⁰⁾ 「고성오광대」의 놀이구성은 다음과 같다.

<고성오광대의 놀이구성>

순서	주요 내용
첫째 마당	문둥이 광대로 문둥이가 북춤을 너울너울 추면서 퇴장하는데 자탄가는 부르 지 않는다.
둘째 마당	양반들과 종인 말뚝이의 놀이판이다.
셋째 마당	중과 각시들의 놀음판인데, 중 두 사람과 각시 두 사람이 나타나서 주고받는 사설은 없고 춤만 추다가 나간다. 파계승 놀이로서는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매우 약하다.
넷째 마당	비비놀이판인데, 인근(隣近)의 「통영오광대」의 영노탈놀이와 같다. 영노를 일명 ‘비비새’라고 하는데, 입에서 ‘비-비-’라고 호드기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비비라고 한다.
다섯째 마당	제밀주마당으로 영감과 큰어미와 작은 어미인 제밀주와의 일부처첩의 갈 등에서 큰어미가 물레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대목은 「가산오광대」의 그것 과 마찬가지로 통영오광대보다 고풍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10) 「고성오광대」 및 본 연구에 소개되는 모든 무형문화재는 『경남의 무형문화재』
(경남: 경남은행, 1997), 31-92쪽의 내용을 참조함.

(2) 고성농요

고성지방의 민요는 「베짜기소리」나 「상여소리」도 좋지만 농요(農謠)가 뛰어나다. 일명 ‘등지’라고도 하는데, ‘등지’란 모내기 노래라는 경남의 사투리이다. 특히 「등지소리」는 이 땅의 선인들이 고달픈 농사일의 애환을 흥겨운 우리 가락에 담아 부른 것이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오늘날 이 고장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이루고있다. 모를 찌면서 부르는 소리는 「모찌기등지」라 하고, 모를 내면서 부르는 소리는 「모심기등지」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느린 「긴등지」를 부르고, 점심때에는 좀 빠른 「점심등지」를 부르며, 해질 무렵에는 「해결음등지」를 부른다. 느린 소리인 「긴등지」는 그윽하고 처량하며, 빠른 소리인 「빠른등지」는 씩씩하고 흥겹다. 「고성농요」의 구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성농요의 짜임새>

순서	주요 내용
첫째 마당	모질 때에 긴등지소리와 찌른등지소리인 「조라자」가 불려지며, 모심을 때는 「긴등지소리」와 점심등지소리인 「더디다」가 불려진다. 그리고 해질 무렵 「해거름등지소리」가 따로 있어 시간과 일의 내용에 따라 장단과 노랫말이 다르다.
둘째 마당	「도리깨소리」는 고성 특유의 메어 때리기식 도리깨질을 하면서 상도리깨의 지시에 따라 메기고 받는 소리에 힘이 저절로 솟음친다.
셋째 마당	「삼삼기」는 여러 명의 부녀자가 두레 삼을 삼으면서 조상을 공경하고 집안의 태평을 기원한다.
넷째 마당	논매기 노래를 하는데 오전에 「상사소리」, 오후에 「방애소리」를 하며, 논매기를 다 마치고 큰 머슴을 팽이자루에 태우고 풍년을 기원하면서 「치기나칭칭」으로 한바탕 즐긴다.
다섯째 마당	「물레노래」는 여러 명의 부녀자가 직접 물레로 실을 뽑으면서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노래한다

(3) 고성 상여(어울림)소리

고성군 이당의 「상여(어울림)소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도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상도꾼이 상여를 메고 험준한 오솔길·논두렁·밭두렁·외나무다리를 통과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지방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약 300여년 전에 제작된 전통 오동나무 목상여가 지금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이 소리의 빛을 더해주고 있다.

예로부터 장수한 끝의 편안한 죽음, 곧 고종명이 오복에 속한다 하여 죽은이의 혼령을 극락세계로 인도하였다. 이 때 혼령을 슬픔과 눈물로 전송하는데, 특히 상도꾼의 「상여어울림소리」와 앞소리인 여상주의 「울음소리」(곡)는 매우 애절하다. 「상여어울림소리」는 함께 행하는 장례의식 절차와 더불어 충효의식을 더욱 높이고 이를 계승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이 고성지방의 지역음악교재에 포함될 수 있는 무형문화재로는 「고성오광대」를 비롯하여 「고성농요」, 그리고 「상여어울림소리」 이상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이 세 가지의 무형문화재는 국가기관에서 지정해준 문화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음악에서만 볼 수 있는, 이른바 악·가·무가 함께 어우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음악교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사천지방의 지역음악교육 자료와 실례

사천시는 경남 서남단의 남해안에 위치하며, 동으로는 고성군, 서로는 하동군, 남으로는 한려수도를 건너 남해군과 접하고, 북으로는 진주시에 인접하고 있다. 사천시에서 채록된 민요 수는 모두 60편으로 늑도, 마도 등 두 개의 섬과 곤양면의 한 개 마을에서 채록된 것이다(한국민요대전, 1994, pp. 191~207). 「그물당기기」와 같이 어업과 관련된 곡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제 사천지방의 향토민요 가운데 지역음악교재에 활용할 수 있는 노래를 소개하겠다.

1) 사천지방의 향토민요

사천지방에서 채록된 향토민요는 「고기푸는소리」(가래소리)·「늑도자탄가」·「시집살이노래」·「갈방아타령」·「그물당기는소리」(전어잡이노래)·「고기푸는소리」(가래소리)·「만선소리」(칭칭이소리)·「이노래」 등 8곡으로, 8곡 모두 교육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가운데 지역음악교육에 활용할만한 향토민요를 초등과 중등교과용으로 나누어 소개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교육적 활용이 가능한 사천지방의 향토민요

지역	초등학교	중등학교
사천시	갈방아타령 · 이노래 · 만선소리(칭칭이소리)	고기푸는소리(가래소리) · 늑도자탄가 · 시집살이노래 · 그물당기는소리 · 고기푸는소리

위의 <표 5>에서 소개된 사천지방의 향토민요들은 이미 발굴하여 채보된 것이다. 사천 지방의 향토민요를 초등과 중등음악교재용으로 분류한 근거 원칙은 고성지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요선율의 음악적 수준과 가사의 내용을 참작하였다. 사천지방의 향토민요 가운데 초등교과에 활용 가능한 향토민요를 소개하면 다음의 <악보 2>와 같다.

삼천포지방의 「갈방아타령」은 그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갈을 절구통에 쥘으면서 부르는 노래로 서로간의 손발을 맞추고 일의 흥을 돋구기 위한 향토민요이다. 오늘날 삼천포의 마도 지역에서 특별한 날이 되면 시연이 되고 있는 「갈방아타령」은 바다와 함께 생활하는 마도 지역 어부들의 생활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곳 사람들의 갈방아에 대한 특별한 인연과 그 애정을 느낄 수 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기에 좋은 노래라고 여겨진다.

이 노래의 특징은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통용되는 메나리토리가 아닌 경토리로 되어 그 독특함을 더하고 있다. 구성 음은 ‘솔-도-레-미’이며, 2분박

4박자의 경쾌한 노래로, 특히 초등학생들이 서로 한 소절씩 주고받으며 부르기 적합한 노래이다. 리듬은 ♩ ♩ 한 리듬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꺾는 듯한 느낌이 들어 남도민요의 맛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악보 2> 삼천포 갈방아타령

채보 : 권태욱 · 박정련

(메) (반)

어 기 — 디 야 차 — 갈 방 — 매 야 에 야 디 야 — 갈 방 매 야

(메) (반)

이 — 방 — 매 가 누 방 앤 고 — 에 야 디 야 — 갈 방 매 야

(메) (반)

경 — 상 — 남 도 로 나 — 리 와 서 에 야 디 야 — 갈 방 매 야

(메) (반)

우 — 리 — 마 도 로 — 들 — 어 오 거 든 — 에 야 디 야 — 갈 방 매 야

(메) (반)

어 — 기 — 야 — 차 — 도 장 원 방 에 다 — 에 야 디 야 — 갈 방 매 야

2) 사천지방의 무형문화재

사천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재는 「가산오광대」를 비롯하여 「삼천포12차농악」·「판소리고법」·「수궁가」, 그리고 곧 문화재로 지정될 「마도갈방아소리」 등이 있다. 그 간략한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사천지방의 무형문화재 현황과 내용

지역	문화재명	내 용
사천	가산 오광대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3호로 지정되었다. 가산리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조선시대에 조창(漕倉)이 있던 곳으로서 진주·곤양·남해·사천·하동·단성·고성 등 인근 일곱 개 군의 조곡을 정수해 서해를 거슬러 올라가 제물포까지 운반하던 항구이다.
	삼천포 12차농악	1966년 6월 29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1-가로 지정된 민속음악으로 사천시의 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에서 전승하고 있다. 삼천포농악에서는 전원이 전립을 쓰고 있고, 개인놀이가 비교적 발달하였으며 모두 12차 가락으로 짜여져 있다.
	판소리 고법	1985년 1월 14일 경상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고, 경남의 판소리고법의 예능보유자 김재근(71세)씨는 고 김명환씨에게 사사한 전수자로, 김명환류의 고법은 왼편 무릎 옆쪽에 놓고 치는 것이 특징이다.
	수궁가	1985년 1월 경남지방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된 판소리이다. 현재 전하고 있는 창본은 신재효본 이외에 여러 개가 있는데, 선동옥(宣東玉)씨는 박봉술본을 전수하고 있다.
	마도 갈방아소리	사천시 서남편에 위치한 마도(馬島)에 사는 사람들이 전어잡이를 할 때 부르는 소리이며, 현재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의 다섯 가지 무형문화재 가운데 사천지방의 지역음악교재에서 활용 가능한 무형문화재는 「가산오광대」와 「삼천포농악」, 그리고 「마도갈방아소리」를 선정하였다. 이 세 가지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산오광대

「가산오광대」는 경남 사천군 축동면 가산리에 전승되고 있는 가면극으로서,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3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가산리에 전수회관을 두고 있다. 음력 정월 2일부터 14일까지 매구꾼(풍물패)이 풍물을 울리며 집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하고, 보름날 저녁에는 조창 앞마당에서 오광대 가면극을 놀았다. 예전에는 가면극을 연행하기 위해서 궤짝에 보관해 두었던 가면을 꺼낼 때, 놀이꾼들이 모인 가운데 양반역할을 맡은 사람이 간단하게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보름날 초저녁에 가면극의 공연을 알리는 의미에서 ‘조창오광대’라고 쓴 깃발을 앞세우고 말뚝이·양반·무당·풍물의 순서로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길놀이도 있었으나 현재는 생략하고 있다. 「가산오광대」는 병신출인 문둥이과장, 정체확인형식의 영노과장, 말뚝이 대사의 확대, 봉사의 독경 등 경남 지방 가면극의 독자성과 향토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일 계통의 가면극인 「수영야류」·「동래야류」·「고성오광대」·「통영오광대」 등 다른 야유나 오광대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놀이내용은 제1과장 오방신장무, 제2과장 영노놀이, 제3과장 문둥이춤, 제4과장 양반춤, 제5과장 중놀이, 제6과장 영감, 할미놀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산오광대의 놀이구성>

순서	주요 내용
첫째 마당	오방신장무(五方神將舞) 과장은 현존 가면극 가운데 유일하게 「가산오광대」에서만 연희되고 있다.
둘째 마당	제2과장인 영노과장은 「수영야류」·「동래야류」·「고성오광대」·「통영오광대」의 영노과장에 「통영오광대」의 제5과장 포수탈(사자춤)이 결합된 내용이다.
셋째 마당	제1과장의 오방신장무 과장의 다섯 신장, 제3과장인 문둥이과장의 다섯 문둥이, 제4과장인 양반과장의 다섯 양반, 제6과장의 할미·영감과장의 다섯 무당 등이 등장함으로써 오행설과의 관련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넷째 마당	할미와 영감의 싸움에서 영감이 조상단지를 깨고 동티가 나서 죽는 내용과 무당들의 진오귀굿이 이채롭다.
다섯째 마당	「동래야류」·「통영오광대」·「고성오광대」 등 다른 오광대나 야류의 문둥이과장에는 한 명의 문둥이가 등장하지만, 「가산오광대」의 문둥이과장에는 다섯 명의 문둥이가 등장한다.
여섯째 마당	「가산오광대」의 할미, 영감과장은 한국의 가면극 가운데 가장 확대되었으며, 매우 다양한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2) 삼천포 12차 농악

1966년 6월 29일 중요무형문화재 제 11-가로 지정된 민속음악으로 사천시의 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에서 전승하고 있다. 진주·삼천포 농악에서는 전원이 전립을 쓰고 있고, 개인놀이가 비교적 발달하였다. 또 쇠가락에 빠른 가락이 많고, 소고잡이의 상모놀음과 곡예적인 놀이가 발달하였으며, 빨리 돌아가는 진법놀이가 많아서 매우 활발하고 씩씩한 것이 특색이다. 농악은 기본적 악장 밑에 많은 가락이 따르고 있다. 농악 12차 36가락은 그 원형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진주·삼천포 농악이 비교적 많이 전수되고 있다. 진주·삼천포 농악은 모두 12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삼천포 12차 농악의 순서>

순서		주요 내용
1	오방진풀이	일명 ‘덕석말이’라고도 하는데, 전쟁에서 적진을 차지한 후 사방을 경계하며 진을 새롭게 다지는 마당이다.
2	얼림굿	진을 다진 후 마음놓고 어울리는 마당이다.
3	덧배기벽구놀음	전투로 지친 병사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마당이다.
4	길군악	치배가 거친 숨을 쉬는 마당이다.
5	영산다드래기	쇠잡이들과 소고수들이 흥겹게 노는 마당이다.
6	멋벽구놀음	치배들과 소고수들이 노는 마당이다.
7	등맞이굿	쇠잡이들이 노는 마당이다.
8	안전법구놀음	치배들이 춤추며 노는 마당이다.
9	호호굿놀이	전쟁에서의 전사자나 부상자 등을 확인하는 마당이다.
10	개인영상놀이	개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이는 마당이다.
11	별굿놀이	치배들의 권위에 대한 기대감을 암시하는 마당이다.
12	홀음굿	모든 치배들이 함께 어우러져 신명나게 노는 뒤풀이 형태의 마당이다.

(3) 사천 마도 갈방아소리

사천시 서남쪽에 위치한 마도(馬島)에 사는 사람들이 전어잡이를 할 때 부르는 소리인 「마도갈방아소리」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갈방아’란 먼사 그물에 갈을 먹이기 위해 소나무 껍질을 쥘어 갈을 만들 때 쥘던 방아다. 장정 4-5명이 서너 시간 동안 방아를 쥘 때 피로감을 잊고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해 부르는 노래가 바로 「갈방아소리」인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마도 갈방아소리의 순서>

순서	주요 내용
첫째 마당	갈방아 쥘는 마당
둘째 마당	갈을 피고 먹이는 마당
셋째 마당	벧고사를 지내는 마당
넷째 마당	고기잡는 마당
다섯째 마당	만선을 기뻐하는 마당

이상과 같이 사천지방에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재로는 모두 다섯 종류가 있으나, 그 가운데 지역음악의 교육용으로 활용 가능한 무형문화재로는 「가산오광대」와 「삼천포12차농악」, 그리고 「마도갈방아소리」 이상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이 세 종류의 무형문화재는 앞에서 제시한 자료선정의 원칙에 충족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담은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역음악교재의 교육적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3. 진주지방의 지역음악교육 자료와 실례

진주시는 경남의 남서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의령군과 함안군, 북서쪽으로 산청군과 하동군, 남쪽으로 고성군과 사천시에 접하고 있다. 진주지방에

서 채록된 민요는 모두 90여 편이며, 음악과 관련된 중요무형문화재는 「진주검무」를 비롯하여 모두 네 종류이다. 진주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 향토민요와 무형문화재 순으로 소개하겠다.

1) 진주지방의 향토민요

진주시 전역에서 채록된 향토민요의 총 수는 약 90여 편이나, 이 가운데 수곡면과 사봉면 등에서 채록된 「아이어르는소리」·「칭칭이소리」·「상여소리」·「모정자소리」 등 5곡이 악보화 되어 있다. 그리고 「화투노래」·「범벅타령」과 같은 유희요가 있으나 논농사와 관련된 노동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한국민요대전, 1994, pp. 283~296). 진주지방에서 채록된 향토민요 가운데 음악교육의 지역화와 관련된 교육적 활용이 가능한 향토민요로는 「아이어르는소리」·「칭칭이소리」·「상여소리」·「모심는소리」·「줄메고가소리」·「진주아리랑」·「진주난봉가」 이상 일곱 곡을 선정하였다. 이상 일곱 곡 가운데 초등과 중등교육용으로 분류하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교육적 활용 가능한 진주지방의 향토민요

지역	초등학교	중등학교
진주시	줄메고가소리(줄다리기노래)·아이어르는소리·칭칭이소리	상여소리·모심는 소리·진주아리랑·진주난봉가

위의 <표 7>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진주지방의 향토민요는 다양한 형태의 향토민요가 채보되었다. 진주지방의 향토민요를 초등과 중등음악교재용으로 분류한 근거 원칙은 향토민요선율의 음악적 수준과 지역적인 특색 및 가사의 수준을 참작하였다. 진주지역에서 초등학교에서 교육적 활용이 가능한 향토민요를 소개하면 아래의 <악보 3>과 같다.

<악보 3> 진주 줄메고가는 소리

채보 : 권태욱 · 박정련

(메)우이 야 어 허 (받)우이 야 어 허

(메)어 허 허 - - - 종 - - - 네 (받)우이 야 어 허

(메)아래 - - - 담 - - - 떨 - - - 장 이 들 아 (받)우이 야 어 허

(메)걸 - 어 도 - - - 라 걸 - 어 - - - 도 라 (받)우이 야 어 허

(메)줄을 - 한 분 을 걸 - 어 - - - 세 라 (받)우이 야 어 허

(메)화 - 란 춘 - 성 은 만 - 화 - 방 춘 (받)우이 야 어 허

(메)때에 는 종 - 다 벗 - 님 - - - 네 야 (받)우이 야 어 허

위의 <악보 3>에서 채보된 진주지방의 「줄메고가는소리」는 일명 「줄다리 기노래」라고도 한다. 이 노래는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면 진주성의 안과 밖이 서로 편을 갈라 줄 싸움을 하였는데, 기우(祈雨)의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노래는 줄다리를 하기 위해 줄을 옮기면서 부르기도 하고, 줄을 어깨에 울러 메고 어루면서 부르기도 하였다. 3분박 느린 2박자로 부르는 이 노래는 메기는 소리가 대체로 높고, 받는 소리는 ‘우이 야 어— 허’로 일정하며 낮은 음으로 시작한다(한국민요대전, 1994, p. 296). 이 노래의 구성 음은 ‘미·솔·라·시·도·레’로 되었고, ‘도’에서 ‘시’로 꺾는 음이 출현하는데 ‘미’음을 떨지 않는 선율진행으로 보아 메나리토리로 볼 수

있다. 「줄메고가는소리」는 메기는 소리가 6박자 두 장단, 즉 12박자가 메기는 소리이고, 받는 소리는 6박자로서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의 박자가 대칭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메기는 부분은 굿거리 장단을 사용하고, 받는 부분은 창자가 흥이 나는 대로 장단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력을 익히기에 충분한 곡이라 사료된다. 또한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줄다리기 시합을 할 때 「줄메고가는소리」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불러볼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곡으로 판단된다.

2) 진주지방의 무형문화재

현재 진주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로는 「진주팔검무」를 비롯하여 「진주포구락무」·「진주한량무」·「입춤」 등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진주지방의 무형문화재 현황과 내용

지역	문화재명	내 용
진주	팔검무	1987년 12월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고, 진주지방에 전승되는 검무를 가리킨다. 진주검무는 8명의 춤꾼이 전복을 입고 남 띠를 띠고 전립을 쓰고 손에 색동 한삼을 끼고 도드리장단에 늘어 서서 느릿하고 장중하게 한삼을 뿌리며 시작되는 춤이다.
	포구락무	1991년 12월 경남 지방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다. 채구(용알·공)를 구문(毬門)의 풍류안(風流眼)에 던져 넣는 놀이를 음악과 무용으로 꾸민 궁중가무의 하나이다.
	한량무	1979년 5월 경남 지방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다. 이 춤은 김만중의 「구운몽」을 소재로 삼은 춤이라고 전해져 있으며, 대체로 진주관아의 행사 때 여흥으로 추어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입춤	3분박 4박자에 맞추어 추는 춤으로, 1900년대 이후 승무와 더불어 기방(妓房)에서 예술적으로 다듬어졌으며, 1930년대 한성준 옹이 고전무용으로 승화시켰다.

위의 네 가지 무형문화재 가운데 음악교육의 지역화와 관련하여 교육적 활용이 가능한 무형문화재로는 「진주팔검무」와 「진주포구락무」 이상 두 가지를 선정하였다. 두 가지 무형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진주팔검무

1987년 12월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된 민속무용인 진주검무(晉州劍舞)는 경상남도 진주지방에 전승되는 검무를 가리킨다. 칼춤은 여러 민족에 의해 연희되고 있는데, 우리 민족도 예로부터 칼춤이 있었지만, 상고시대 칼춤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동경잡기』·『문헌비고』와 같은 문헌에는 가면을 쓴 채 칼을 들고 춤을 추는 창랑의 검무가 나오는데, 이 검무가 『삼국사기』에 보이는 신라 품일장군의 아들 관창의 고사를 춤으로 엮은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진주검무」는 8명의 춤꾼이 전복을 입고 남띠를 띠고 전립을 쓰고 손에 색동 한삼을 끼고 도드리장단에 늘어서서 느릿하고 장중하게 한삼을 뿌리며 시작된다. 그러다가 한삼을 빼어 맨손을 뿌리며 입춤사위로 추다가 이윽고 엎드려 숙인 사위로 어른다. 이윽고 앉은사위로 춤을 추다가 땅에 놓았던 칼을 양손에 갈라 쥐고 씩씩한 타령장단에 칼을 좌우 사위로 휘두르며 방석돌이로 돌아가며 장쾌하게 칼춤을 춘다. 「진주검무」는 다른 고장의 검무에서는 보이지 않는 여러 화사한 춤사위가 보인다. 근래까지는 굵은 칼을 썼으나 최근 보유자들이 고제대로 곧은 칼을 쓰고 있다. 장단의 흐름은 도드리 → 느린타령 → 빠른타령 → 느린타령 → 아주 빠른타령 순으로 구성 되어있다.

(2) 진주 포구락무

1991년 12월 경남 지방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된 「포구락무」(抛毬樂舞)는 채구(용알·공)를 구문(毬門)의 풍류안(風流眼)에 던져 넣는 놀이를 음악과 무용으로 꾸민 궁중가무(宮中歌舞)의 하나이다. 「진주포구락무」는 고종 때 진주부사를 지낸 정현석(鄭顯奭)의 『교방가요』에서 비롯하였다고 하여 궁중문화가 지역화된 셈이다.

궁중가무가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의상·도구·절차 등에서 변화가 생긴 것인데, 「진주포구락무」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는데 의상이나 치장이 다르고 창법도 다르다. 중앙에 세워진 포구문을 중심으로 춤의 편싸움 형식으로 진행된다. 여러 가지 장단에 따른 갖가지 모양의 춤을 두 편으로 갈라서 추다가 두 편이 공을 포구문 안의 풍류 안에 던져 넣는다. 한사람씩 공이 들어갈 적마다 '지화자'를 부르면서 반긴다. 이 놀이는 춤꾼이 12명, 봉화와 봉필 각 2명씩, 악사 7명, 창자 2명이 출연하며, 반주가 염불도드리로 바뀌면 두 편에서 각각 양팔을 옆으로 펴들고 앞으로 또는 뒤로 나아가거나 회전하면서 나선형으로 돈다. 또 장단이 바뀌면 안팎으로 나뉘었던 무용수들이 외향무(두사람이 서로 바깥쪽으로 향하여 춤추는 동작)를 추는데, 외향무는 양팔을 몸 앞에 여미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동작을 취하고 내향무는 꽃을 향하여 희롱하고 어르듯 춤을 춘다. 내외향무가 서로 교차하다가 곡이 타령으로 바뀌면 양팔을 위로 뿌려서 좌우로 각 한번씩 팔을 돌려주며 걸어나가는 춤을 춘다. 이윽고 두 편이 포구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선다.

「포구락무」는 궁중이나 교방에서 추는 춤이었으나, 점차 민속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특색 있는 놀이로 전승되고 있다. 색한삼을 끌어 던진 후, 양편에서 한 사람씩 양팔을 위로 올려 접었다가 위로 펴서 팔자(八字)형태를 취하면서 내리는 동작을 취하며 어르다가 공을 풍류안에 던진다. 명중하면 자기편 모두가 춤을 추며 '지화자'를 부르고, 던져 명중시킨 사람이 나아가 앉으면 삼지화(三枝花)를 머리에 꽂아준다.¹¹⁾

지금까지 고성군·사천시·진주시를 중심으로 지역음악교육을 위한 음악적 자료를 어떻게 선정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개된 자료들은 어디까지나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실례일 뿐, 앞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향토민요나 다양한 무형문화재가 소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지역음악교육의 핵심은 지역에 산재해있는 훌륭한 음악적 소재들을 학교현장으로 끌어 들여 얼마나 효과적으로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러한 목적달성은 곧 학교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 이상에서 소개된 무형문화재는 『경남의 무형문화재』를 참조함.

V. 마무리

음악교육의 지역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고성군과 사천시, 그리고 진주시는 경상남도 내에서도 향토민요 및 무형문화재가 가장 많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권에 속한다. 특히 고성지방의 「고성농요」를 비롯하여, 사천지방의 「삼천포12차농악」, 그리고 진주지방의 「진주팔검무」 및 「진주포구락」은 전국적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중요한 무형문화재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문화재들은 지금까지 전승적인 면만 강조하였지,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적 접목을 시도한 경우는 드물었다. 따라서 음악의 지역화교육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독창성을 발굴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음악문화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경험케 함과 동시에, 세계화·정보화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교육적 지혜를 음악의 지역화 교육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음악교육의 지역화는 단순히 지역의 향토민요와 문화재 따위를 음악교재에 수록하고 소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역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소재가 많더라도 학교장이 지역문화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교사의 지역화 교육에 대한 역량과 열의가 부족하다면 지역화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마다 전승되고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교육적 방법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통문화는 과거로만 향하는 정체되고 박제된 문화가 아니라, 앞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해 가는 역동적인 문화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학교마다, 그리고 교사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될 수 있는 창의성을 지니고 있다.

끝으로 음악교육의 지역화에 대한 보다더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도 극복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에 채보된 향토민요는 대체로 토속성이 강해 세련미가 덜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보된 민요를 그대로 교육에 활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향토민요의 편곡작업(編曲作業)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에 채보된 향토민요의 가사 가운데 교육적으로 부적합한 내용들, 예컨대 남녀의 애정행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내용, 고된 시집살이 이야기로 혼인(婚姻)에 대한 부정적 심성을 갖게 하는 내용,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이 보이는 내용은 배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정서에 부합되는 노랫말로 고치는 노래가사의 개사(改詞)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지금의 교육적 정서는 대체로 중앙에서 시키면 지방에서는 그대로 따라만 하는, 이른바 중앙 중심의 교육정서가 고착되어 있다. 이러한 중앙 중심의 교육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음악교육의 지역화는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 교육청과 학교는 물론이고, 교사와 학생들의 지역음악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문화적 마인드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에 전승되는 무형문화재의 올바른 전승과 계승을 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별 전담전수제도의 도입과 지역 상호간의 음악연구에 대한 정보교류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¹²⁾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면서 동시에 열린 세계이기도 하다. 이처럼 개방된 사회일수록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야말로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다. 또한 이러한 국가적 문화는 곧 지역의 문화적 정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지역의 음악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음악교육의 지역화는 단순히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음악을 알게 한다는 차원을 넘어, 21세기에 펼쳐지고 있는 국제화·세계화시대에,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제공한다. 앞으로 지역의 음악문화는 결코 지역만의 문화가 아니라, 한국문화, 나아가 세계적인 음악문화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음악의 지역화 교육을 통해 우리 모두 공감하게 될 것이다.

12) 음악교육의 지역화를 위한 과제의 내용은 권태욱, “음악교육의 지역화를 위한 방안 모색,” 『음악과 민족』(부산: 민족음악학회, 2004)에 출간될 내용을 적용함.

참 고 문 헌

<단행본>

- 경남은행 (1997). **경남의 무형문화재**. 경남: 저자.
- 한국국악교육연구회 (1976-현재). **국악교육**. 서울: 저자.
- 국립국악원 (1982). **국악연혁**. 서울: 저자.
- 『한국민요대전』. 서울: mbc, 1994.
- 경남일보사 (1999). **경남일보**. 경산: 영남대출판부.
- 경상남도교육위원회편 (1988).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역화**. 경남: 경상남도교육연구원.
- 김동욱 (1954). **한국가요의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 송방송 (1985). **한국음악통사**. 서울: 일조각.
- 송방송 (1981) **한국음악학논저해제**.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성천 (1992). **민족음악교육을 말한다**.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이성천 (1994) **한국의 음악교육을 진단한다**.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이성천 (1996) **나도 국악을 가르칠 수 있다**.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이유선 (1968). **한국양악80년사**. 서울: 중앙대학교출판국.
- 장사훈 (1986). **국악총론**.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논문>

- 권태욱 (2003). 음악과 민족, **음악교육의 지역화에 관한 연구(1)** (pp. 383-410). 부산: 민족음악학회.
- 권태욱 (2004). 음악과 민족, **음악교육의 지역화를 위한 방안 모색**(27, pp.393-424), 부산: 민족음악학회.
- 김기수 (1979). 국악교육의 어제와 오늘. **연세교육과학**.
- 이성천 (1994). 국악교육의 방안모색. **한국의 음악교육을 진단한다**. 39-56.
- 이승렬 (1974). 한국음악 교육의 제문제. **한국음악연구**. 서울: 한국국악학회.

장사훈 (1965). 한국예술총람: 자료편. 국악연표. 서울:대한민국예술원.

최종민 (1973). 한국음악교육의 문제점. 초등학교 음악과정의 문제점. 강릉:
강릉교육대학.

ABSTRACT

A Study on the Localization of Music Education(2)

- focusing on *Goseong* County, *Sacheon* City and *Jinju* City -

Kwon, Tae-Uk

A lot of folk songs and intangible cultural assets have been inherited in *Goseong* County, *Sacheon* City and *Jinju* City. *Goseong-nongyo*, *Samcheonpo-nongak*, *Jinju-palgeommu*, and *Jinju-pogurak*,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study, are major intangible cultural assets which have been known in the whole nation as folk songs.

But an inheritance of these folk songs was emphasized, but applications of these folk songs to music teaching were not made very often. Thus this study was aimed to find creativities of the local folk songs, to enable students to have opportunities to experience their value and superiority, and to find out educational wisdom to face the rapidly changing world through the localization of music teaching.

A localization of music education should not end up to present local folk songs in the music textbooks. Even though there are many musical materials in a certain community, if principals are not interested in teaching local folk songs, or teachers do not have abilities and passion to teach, the effects of localization on music education will not be expected.

It matters how the local materials can be applied on teaching music.

The traditional culture is not a fixed and stuffed culture, but it has a part of a dynamic culture. Therefore, teachers can introduce the new meaning of local folk songs into teaching music.

Twenty-first century is a century of culture in the open world. Our own unique culture has a strong competitiveness. Our nation's culture comes from local cultural emotion originally, so local folk songs should be recognized in the new light. A localization of music education is to teach local folk songs as well as to have students perceive the truth that what is local becomes what is Korean, and what is Korean becomes what is universal. In the future we will share the fact that local music can be a step stone to move forward to the world music through a localization of music education.